

지역주민초청 가든파티 신문기사 #2

크리스천경남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희망촌 교회 지역주민 초청 잔치 섬김 통해 이웃과 만난다



성도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희망촌교회(통합, 백종선목사)는 지역 주민 초청 잔치를 지난 9월28일 오후 4시 본교회에서 가졌다.

이날 1백70여명의 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김용태 집사(희망촌교회)의 사회로 백종선 목사의 기도 후 사천중앙교회 장구 연주와 한반도 태권도 도장의 태권도 시범과 본교회 아동부 재롱 잔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완수 창원시장과 안홍준 국회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축하 행사에 이어 오찬

을 대접하며 친교를 나누었다.

이날 백종선 목사는 “4년 전부터 봄 가을 연 2회로 이웃과의 정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 주민들을 초청하게 되었다.”면서 “섬김을 통하여 이웃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는 지역 경로당에 매월 쌀을 섬기고, 이웃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 보조와 졸업시에 장학금 전달 등을 하는 등 지금 까지 꾸준히 이웃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숙희 권사(선교국장)

지역주민초청 가든파티 신문기사 #1

경남기독신문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교 계

[제316호] 기쁨이 되는 (주)경남 기독신문

지역주민과 교회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희망촌교회, 지역주민 초청 가든파티 4년간 진행

희망촌교회(백종선 목사)는 9월 25일 오후, 지역주민을 초청해 가든파티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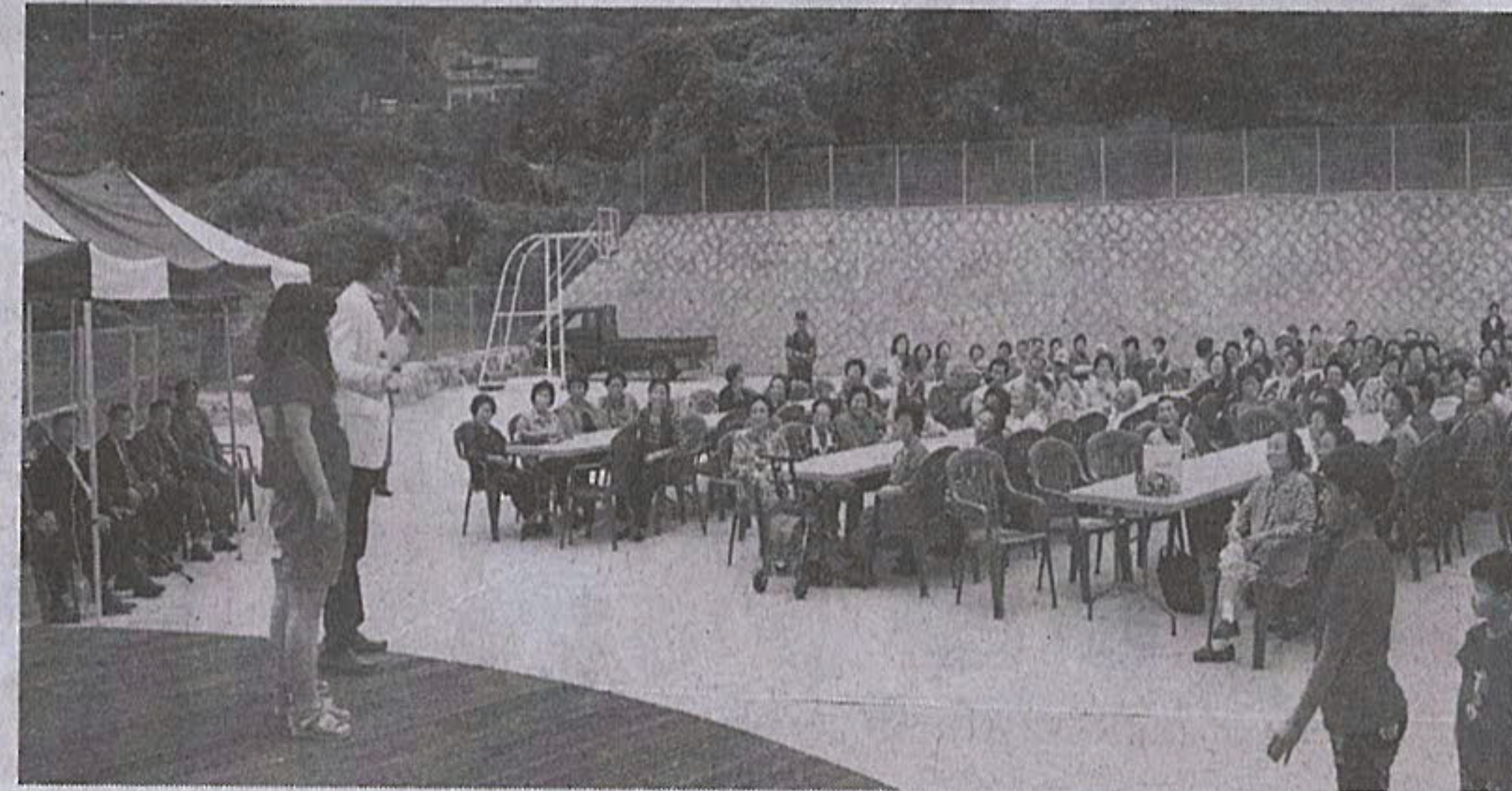
담임 **백종선** 목사

이 날 박완수 창원시장, 안홍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종대 창원시의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교회는 1년에 2회 지역주민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가벼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행사를 4년여 진행해오고 있다.

백 목사는 “사회가 도시화되다 보니 이웃에 살아도 서로를 잘 모

른다. 함께 식사를 하고 교류하며 지역주민간의 끈끈한 정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했고, 많은 호응을 해 주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는데 꾸준히 참석인원이 늘어나 현재는 150여명이 참석해 함께 식사를 나눈다.

이 날 1부 초청내빈 소개 및 인사시간에 안홍준 국회의원과 박완수 창원시장의 축사했고, 2부 순서로 위문공연이 진행됐다. 김용태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사천중앙교회 장구찬양팀의 연주, 한반도태권도장 학생들이 시범공연, 희망촌교회 아동부의 무용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희망촌교회는 9월 25일 오후, 박완수 창원시장, 안홍준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가든파티를 열었다.

한편, 희망촌교회는 지역민과 함께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외에도 경로당 어르신 섬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 겨울철 독거노인을 위한 김

장담그기 행사 참여 등을 비롯해 쉼터, 주차장 등의 교회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황인희 팀장